

『제47회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 일반면허시험』

- 응시원서 교부, 접수, 면허시험 시행 -



협회에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주관으로 시행되는 “제47회 RI취급자일반면허시험”의 원서교부 및 접수를 수도권지역 회원사의 시험응시자의 편의를 위하여 '97년 3월 20일부터 3월 27일까지 실시하였다.

협회에 1,081명이 접수를 하였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762명이 접수를 하여 총 접수 인원은 작년에 비하여 5%의 증가를 보인 1,843명이었다.

시험은 4. 20(일)에 충북대학교 문과대학에서 시행되며 응시자는 시험당일 09:00까지 입실하여야 한다. 시험은 1교시에 원자력관계법령과 방사선취급기술기초를 2교시에 방사선장해방어와 원자력기초이론을 치르게 된다. 시험은 각 교시당 60분이며, 시험문제는 객관식으로 각 과목당 20문제씩 총 80문제이다.

합격자 발표는 5월 2일경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게시판에 공고되며 합격여부의 확인 문의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시험관리실 (☎042-868-0315~19)이나 당 협회(☎ 02-566-1092)로 하시면 됩니다.

- 교육협력팀

신문속의RI단신

알바니아 폭도들, 화학무기 및 방사성물질 탈취

알바니아인 폭도들은 군수품 저장소들을 약탈하면서 고도로 위험한 화학무기와 방사성물질을 탈취해 갔다고 육군 화학무기국장 아슬란 부샤티 대령이 어제 밝혔습니다. 부샤티 대령은 어제 TV에 나와 “매우 위험한 화학제품들이 피에르, 페르메트, 블로르 등 최소한 4개 남부 도시 군수품 저장소들에서 도난 당했으며 방사성 제품들도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부샤티 대령은 “이들 유독 제품들은 인간에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하고 지난달 거의 모든 군수품 저장소들을 약탈했던 반정부 반란자들에 대해 “조심해야 하며 군부대나 경찰에 반납해 주기를 호소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샤티 대령은 코발트 60과 스트론튬 90도 약탈당한 방사성물질 속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 물질은 무기류는 아니며 군 연구 실험실에 저장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통신 : 97/04/07〉